

주님의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는가 했더니 어느새 6월이네요. 벌써 한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날이 가면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오나 싶더니 어느새 여름이 된 듯합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기쁨과 감사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이끄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쉬고 있는 성도들이 속히 예배를 회복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할 지체들을 보내주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테러방지 및 전체적인 점검을 하겠다는 통지가 왔는데 담당자의 시간이 자꾸 뒤로 밀리면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 방문한다고 하더니 담당자가 1달 동안 휴가를 떠나서 7월쯤에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방문해서 점검할 때 문제없이 잘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재 예배드리는 장소와 허가받은 장소가 달라서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건물을 지었지만 허가받는 과정이 복잡해서 교회건물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허가받은 장소와 예배드리는 장소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지역별로 담당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생명농업 현장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땅을 갈고 모종을 키우고 파종을 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냈더니 어느새 싹이 트고 활기를 얻고 있습니다. 온 마을과 현장이 푸르름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밭에는 고구마, 감자, 호박, 당근, 참외, 수박, 옥수수 등을 심었고, 온실에는 고추, 상추, 가지, 열무 등을 심었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실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풀을 뽑고 가뭄에 물을 주며 가꾸는 일을 맘 흘리며 성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과 5월 9일 두 차례를 통해 병아리 500여 마리를 받아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손실을 막기 위해 칼슘을 물에 희석해 1달여를 먹이고 있습니다. 잘 자라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빼약거리며 돌아다니는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



한 기관으로부터 로터리치는 아시아 중고 관리기를 기증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사용할 거 같아서 회의하여 우리에게 기증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중고 관리기라 고장 나서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았지만, 엔진이 괜찮아서 신고 와서 수리했습니다. 한국 기계라 비슷한 부품을 구하여 개조하고 수리하는데 열흘정도 걸렸습니다. 로터리 연결 체인이 끊어져 부품을 구하느라 열 곳의 상점을 찾아다닌 후에 같은 사이즈를 구하여 돌아오면서 다행스럽고 기뻐했습니다. 에직과 꼬스짜가 수고해 줬습니다. 수리하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들었지만, 구하고 싶었던 기계였고 한국에서 가져오는 통관 수속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망설였는데 기증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발걸이가 아주 늦지 않게 되었고 5월 말까지 파종을 마쳤습니다.



강아지 분양이 잘 되었습니다. 큰 개가 11마리 작은 개가 4마리의 강아지를 낳아서 분양을 위해 광고를 했는데 동네에서 5마리, 유기견보호소에서 10마리를 가져가서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말 못하는 개지만 중절 수술의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수술시키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유기견 보호소에서 가져간다면 수술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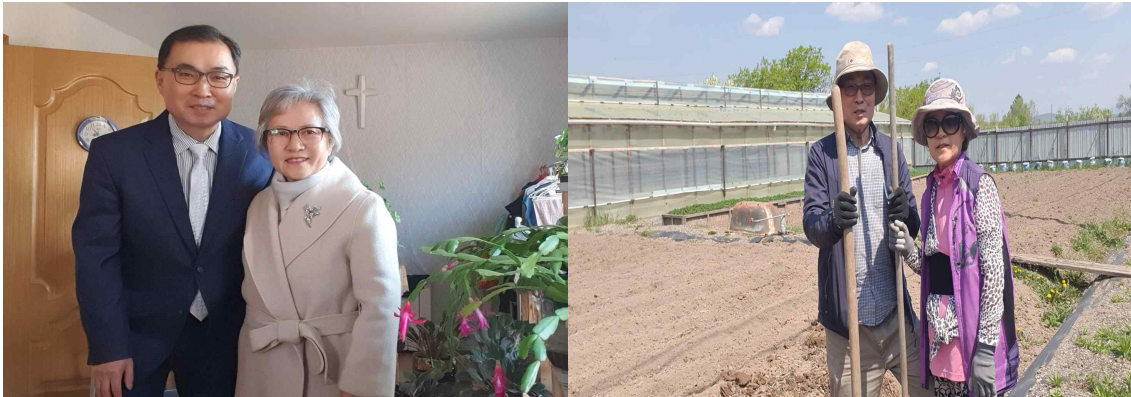
농촌마을은 현장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눈 치우는 게 어려운데, 봄 여름에는 풀을 베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 가기 전 1차 풀 베기도 끝냈습니다. 밭에는 멀칭과 제초매트(현수막)를 씌워서 풀을 잡으려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현수막이 잘 사용하였습니다.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을 경유하여 몽골에서 진행되는 유라시아 선교대회(3년에 한 번씩 하는 권역대회 6:16~19)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중국경유가 안 되는 상황이라 한국을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비우는 기간 교회 성도가 현장을 관리해 주기로 해서 감사합니다. 직항이 없고 배를 타고 가야 해서 13일 정도 비우게 됩니다.

한국 가기 전 여러 일들이 생겨서 당황했지만 잘 해결되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우수리스크에서 앞바퀴가 펑크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동료선교사의 수고로 무사히 수리하게 되었고, 집에 물 새는 곳을 수리했는데 전기가 다운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해결되었고, 거주등록을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다시 들어와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아내 이기성 선교사는 척추 12번 골절로 아직도 고생하고 있지만 힘든 가운데도 일상을 감당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건강해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서 일단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예약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는 소식을 듣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1. 임마누엘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므로 영과 육신이 강건해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굳게 서서 복음을 증거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픈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이바노프카에 사는 주민들이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 주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2. 제한된 상황 속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모임이 기도 가운데 준비되고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순리롭게 시작되게 하소서. 임마누엘 교회와 생명 농업 현장이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본연의 목적대로 잘 사용되게 하소서.
3. 함께 사역할 동역자와 합당한 후임자가 오게 하소서.
4. 김경일 이기성 선교사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강건하게 하소서.
5. 유라시아 선교대회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출입하는 모든 과정과 두고 가는 현장을 관리할 마리나와 마야가 잘 감당하게 하소서.

2026년 6월 8일

이바노프카 임마누엘 교회와 생명농업현장에서
러시아 선교사 김경일, 이기성 드림.